

1980년 이후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Vogue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은 숙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Ethnic Fashion from 1980 to 2009 -Focus on the Content Analysis of Vogue Magazine-

Sook Eun · Jae-Ok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접수일(2009년 8월 26일), 수정일(1차 : 2010년 4월 27일, 완료일 : 2010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ethnic fashion presented over a 30-year perio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ethnic trends according to historical trends. Data were collected from 59 volumes of "Vogue" magazine for January and July in each year from 1980 to 2009. The data used for content analysis consists of 407 words and these were condens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decade (1980-1989, 1990-1999, and 2000-2009). The selected words were classified into five sub-theme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definitions such as Asian look, European look, American look, African look, and Oceanic loo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thnic fashion was highly presented in the 1990s and 1980s, and decreased in the 2000s; of note is that the Asian look appeared more in the 1990s. Second, ethnic fashion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F/W seasons in the 1980s and S/S seasons in the 2000s, while both seasons had a higher frequency in the 1990s. The sub-themes of coexistence were presented 26 seasons out of 59 seasons. The coexistence of the Asian-European look was evident in the 1980s and 2000s, while the sub-themes coexistence was more diverse in the 1990s. Third, the words selected from sub-themes of ethnic fashion demonstrated the differences by decade. In particular, various fabrics and patterns appeared in the 1990s.

Key words: Ethnic fashion, Asian look, European look, American look, African look; 에스닉 패션, 아시아룩, 유럽룩, 아메리카룩, 아프리카룩

I. 서 론

패션은 문화적 산물로서 개인, 민족, 시대정신(spirit of the times, Zeitgeist)을 반영하며 시간적·공간적 관계를 통하여 변해 왔다.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변화 자체는 필연적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형식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모더

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이 패션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최영옥, 2005). 또한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의 발달은 '시·공간의 압축'(Harvey, 1990)과 함께 세계를 한층 역동적으로 바꿔 놓았으며,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에스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park@hanyang.ac.kr

닉이 현대 패션의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Schiro(1991)는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서 “패션에서의 화두는 미니나 맥시 또는 스트레치가 아니라 세계화”라고 하였다. 1990년대의 세계화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변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지구촌 문화의 급속한 교류와 확대를 가져왔다. 전자통신과 교통 수단의 발달,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임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에서 물리적 거리가 지니는 의미가 점차 약해져 감을 보여주었다.

에스닉은 디자인을 기획하고 전개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는 패션의 주요 테마(박혜원 외, 2006; 이정희 외, 2002; 채금석 외, 2003; Burns & Bryant, 2002; Frings, 2002) 중 하나이다. 민속풍 또는 에스닉 패션에 관해서는 크게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민속복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기영, 유영선, 1995; 김정아 외, 2005; 박은주, 은영자, 1999; 최호정, 2007)와 세계 각 지역의 영향을 받은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이정아 외, 1996; 정연자, 1993)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1980년대(1982~1993년), 1990년대(1989~1994년; 1990~1995년; 1990~1998년), 2000년대(2000~2005년) 등, 일정 시기의 에스닉 패션에서 나타난 특성을 주로 고찰하였다. 또한 1980~1990년대(이정아 외, 1996), 그리고 21세기(김은경, 채금석, 2006)로 오면서 패션의 다원화 경향으로 다양한 에스닉풍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존현상의 추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의 하위테마를 분류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패션의 전환점(리포베츠키, 1987/1999; Evans, 2003; Morgado, 1996)이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의한 탈산업사회가 이루어진 시기(Carnegy, 1990)인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30년간에 걸친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을 통하여 에스닉 패션의 다양성과 그 추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스닉 패션의 개념

에스닉 패션 또는 에스닉룩은 일반적으로 민속풍

이라 부르고 있다. 민속이란 인종을 초월한 사회의 습속(習俗)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것으로, 오늘날 전통복식은 민속의상으로 불리고 있다. 민속의상은 전통적으로 그 국가 혹은 지역에서만 착용하였던 옷(Frings, 2002)으로 그 지역 고유의 풍속이나 풍습, 소재, 문양, 기술 등이 나타나있다. 따라서 민속의상은 개개인이 어떤 국가나 지역의 일부분으로서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Frings, 2002; Tortora & Eubank,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O'Hara(1986)는 사전적 의미에서 에스닉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과 극동, 동양, 태평양 그리고 대규모의 농민공동체 국가의 의복에서 영감을 받은 옷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거의 언제나 단순하고 기능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서구의 관점에서 에스닉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민속복식 요소들이 서양복식에 도입된 패션에 관한 연구들(권기영, 유영선, 1995; 박은주, 은영자, 1999)이 이루어졌으나, 오리엔탈리즘은 Said(197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문명화된 서구가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비서구 사회를 문명상태로 전환시키겠다는 서구 제국주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사전(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에서 에스닉룩을 민속복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된 민속풍 스타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Frings(2002)가 오늘날의 에스닉룩은 세계 모든 국가의 전통적 복식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듯이,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의 에스닉에 대한 이해는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적인 민속복식의 양식들을 서양패션에 도입, 적용함으로써 독특한 새로운 현대 패션으로 표현한 복식유형(최해주, 안은경, 2003)을 에스닉 패션(권기영, 유영선, 1995; 이정아 외, 1996) 또는 민속풍(정연자, 1993)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적용된 세계 여러 민족복식은 크게 5개의 하위테마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4개 하위테마는 공통적(이정아 외, 1996; 정연자, 1993; 황춘섭, 1997)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1개 하위테마는 오세아니아(정연자, 1993; 황춘섭, 1997) 또는 남태평양(이정아 외, 1996)으로 달리 분류되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룩으로는 일본룩, 중국룩, 중동룩, 월남룩, 인도룩, 한국룩 등이 나타났고, 유럽룩으로는 동구권룩, 유목민룩, 짐시룩,

러시아룩, 스페인룩 등이 나타났다(이정아 외, 1996). 정연자(1993)는 유럽룩에 불가리아룩, 스코틀랜드룩을 포함시켰고, 아메리카룩으로 북미 인디언룩과 서부개척자룩, 그리고 멕시코룩, 칠레룩을 포함시켰다.

2.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배경

패션의 개념은 지속적인 변화를 수반하는데, 에스닉 패션에 있어서도 20세기 후반 이후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에스닉 패션의 한 유형으로서 특정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권기영, 유영선(1995)은 1980년대에 인도풍과 일본풍 패션이 유럽에서 나타나 오리엔탈리즘을 부각시켰고, 1990년대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패션의 흐름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은주, 은영자(1999)는 1990년대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인위적이고 도시적인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망이 정신세계에 대한 본질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패션에 있어서도 인도풍이 커다란 흐름으로 다가왔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아 외(2005)는 9.11 테러와 미국 이라크 전쟁 이후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큰 관심과 더불어 이슬람 지역을 이미지로 한 스타일이 대거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에스닉 패션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재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30년간에 걸친 에스닉 패션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1)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는 사회정치적 이념이 막을 내리고, 화려함과 풍요로움, 다양함이 정점을 이루던 시대로, 인구 통계적인 변화가 일어나(Carnegy, 1990) 전후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향이 나타났다. 1983~84년, 미국의 대도시 교외에 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 층인 여피(yuppie: young, upwardly mobile professionals 또는 young urban professionals) 들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부에 가치를 두며, 여가를 즐기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류들로, 돈과 이미지에 집착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고가의 과시적인 패션

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이분적 세계정세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당선되면서 서방세계는 다시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1985년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glasnost)과 경제적 개혁(perestroika)을 선두로 국제 냉전체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같은 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치적 다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1989년 중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주요한 내전과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란 국왕의 타도와 함께 이슬람교의 세력이 서구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은 80년대 중반, 엔화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일부 미국 제조업자들은 값싼 임금을 찾아 멕시코, 한국, 대만, 중국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에 따라 동유럽으로 의류제조를 옮겼다.

2) 1990년대의 시대적 배경

1990년대 초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침체는 1980년대의 자유분방한 소비에 제동을 걸었고, 세계적으로 10대의 돌풍이 일어남으로써 대중의 주체가 바뀌었으며,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순환이 빨라졌다(Feldman, 1997). 1990년대 말에는 문화 전반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Worsley, 2000)라는 기치하에 단순하고 안정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자, 동구권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민족분규가 그치지 않았다. 1991년의 벽두를 장식한 걸프 전쟁은 한달 여만에 미군 및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났다. 1991년 남아프리카 정부가 인종격리법을 폐지하였고, 만델라가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의장에 당선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00년에 걸친 인종차별이 종식됨으로써 소수의 백인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세계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정치적 양극체제에서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양상을 보이며 세계화되었다. 1993년에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완성뿐 아니라, 공동의 외교·국방 정책을 목표로 하는 조약을 조인하였으며, 1999년 1월에 유럽 단일통화 유로(Euro)가 등장하여 '하나된 유럽'은 세계사의 주역으로 재등장하였다. 한편, 1997년에는 홍콩의 중국 반환과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1997~98년에 아시아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변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지구촌 문화의 급속한 교류와 확대를 가져왔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커뮤니케이션 기술환경은 디지털(digital)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며, 1991년 World Wide Web에 의한 인터넷의 상용화는 국가 간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상공간)의 개념을 가져왔고, 점차적인 이동전화기의 보편화는 이를 가속화시켰다.

3) 2000년대의 시대적 배경

Y2K의 공포와 함께 맞이한 21세기는 동서의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테러리즘과 자연재해는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함께 지구촌 공동의 문제가 되어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나이스비트(1999/2000)와 에버튼(2005/2006)은 1990년대에 이르러 꽃피웠던 하이테크의 정보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이테크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21세기는 소련의 해체 속에서 강력하게 떠오르는 중국과 함께 단독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관련하여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 대한 테러리즘이 늘어나자 서구 세계는 중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1년 9월 알-카에다(Al-Qaeda)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의 비행기 추락은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공표하게 하였다.

새로운 세기는 급속한 정보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세계를 또다시 통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교, 인종, 언어 등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점을 갖는 몇 개의 문명공동체로 나뉘어지고 있다. 1993년에 제정된 유럽통합공동체는 200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12개국에

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럽공동체는 2004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국가들과 지중해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아프리카공동체도 뒤를 잇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에 걸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에스닉 패션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에스닉 패션의 시대별 분포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와 하위 테마의 공존현상 추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에스닉 패션의 추출어휘에 대한 시대별 차이를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자료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Vogue지의 매년 1월호와 7월호에 해당하는 총 59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연구의 시작범위를 1980년대로 선정한 이유는 문헌(e.g., 리포베츠키, 1987/1999; Evans, 2003; Harvey, 1990; Jencks, 1989; Morgado, 1996; Tortora & Eubank, 2005)과 선행연구(남재경, 금기숙, 2001; 박명희, 1991; 이봉덕, 2001)들이 1980년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패션에서의 전환점으로 보았고, 리포베츠키(1987/1999)가 현대 패션을 세 시기로 나누면서, 세 번째 시기가 시작된 해를 1980년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의한 탈산업사회가 현실이 된 시기로서(Carnegy, 1990)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변화의 가속화와 다양화, 동시화에 따라 패션 트렌드의 공존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석자료를 Vogue지로 선정한 이유는 패션 컬렉션이나 컬렉션 잡지가 실제 매장에서 보여지거나, 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패션과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Vogue지는 대중적인 패션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선행연구(박명희, 1991; 추미경, 2006; 하지수, 2001)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월간으로 발행되는 패션 잡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션 컬렉션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1월호와 7월호에 컬렉션에 관한 기사를 정

리하여 보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0년 1월호부터 2009년 1월호까지 총 59권의 Vogue지 가운데, 패션 칼럼 'View'와 'Point of view'의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에스닉 패션에 관련된 어휘추출을 위한 내용분류는 문헌(황춘섭, 1997)과 선행연구(이정아 외, 1996; 정연자, 1993)를 바탕으로 아시아룩, 유럽룩, 아메리카룩, 아프리카룩, 오세아니아룩 등 5개의 하위테마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테마별로 그 지역에 속하는 민속의 전통복식과 전통기법을 나타내는 어휘와 특정 민속룩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민속적(ethnic)이나 이국적(exotic)인 의미를 지닌 어휘들을 추출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관련 어휘는 에스닉 패션을 나타내는 명사와 수식어를 모두 포함하여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kimono'나 'cheongsam'과 같이 특정 민속의상 자체와 'batik'이나 'tartan'과 같은 염색기법이나 직물, 그리고 'African-inspired gold beads'나 'gypsy influence such as ruffles'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이나 민속으로부터의 영향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모두 추출하여 출현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에스닉 패션의 시대별 분포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간에 걸쳐 에스닉 패션에 관련된 총 407개의 어휘가 추출되었다.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에 나타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테마별 어휘의 분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에스닉 패션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룩(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럽룩(32.7%), 아메리카룩(16.7%), 아프리카룩(8.8%), 오세아니아룩(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에스닉을 나타내는 어휘들로 구성된 기타가 4.2%로 나타났다.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대(42.8%)와 1980년대(41.0%)가 비슷한 분포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0년대(16.2%)에는 두 시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지역별 에스닉 패션에 대한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룩은 1980년대에 인도네시아룩(23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본룩(9회), 인도룩(7회), 중국룩(6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

대에는 중국룩(19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터키룩(9회), 일본룩(8회), 인도룩(8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티벳룩, 네팔룩, 캄보디아룩, 몽골룩이 새롭게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에는 일본룩(8회)과 인도룩(6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우즈베키스탄룩만이 새롭게 등장하였을 뿐, 1990년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민속풍이 줄어들고, 동양을 언급하는 어휘들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룩은 1980년대에 스코틀랜드룩(31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페인룩(14회), 집시룩(9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스코틀랜드룩(9회)을 제외하고는 스페인룩, 집시룩, 페전트룩, 러시아룩이 같은 분포(6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룩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보이지 않았던 프랑스룩, 폴란드룩 등 좀더 다양한 민속룩이 새롭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에는 스페인룩(10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스코틀랜드룩(5회)과 페전트룩, 집시룩, 러시아룩이 비슷한 분포(4회)를 보여주었다.

유럽룩과 관련하여 한가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선행연구(박은주, 은영자, 1999; 최영옥, 2005; 최호정, 2007)와 "에스닉룩"(2003)에서 페이즐리 무늬를 인도의 무늬로 보았고, 정연자(1993)는 불가리아로 분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무늬로 보았다는 점이다. 페이즐리는 인도의 'Kashmiri cone' 모티프에서 온 것이지만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하고 페이즐리라는 이름으로 유행시킨 것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McDowell(2000) 역시 영국 방직업자들이 인도의 패턴을 받아들여 페이즐리라는 자신들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인 해석(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O'Hara, 1986)에 근거하여 페이즐리 무늬를 유럽룩의 스코틀랜드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페이즐리를 인도의 무늬로 간주할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1980년대 역시 아시아룩이 높게 나타났을 것임을 짐작 넘어가야 하겠다.

다음으로 아메리카룩은 1980년대에 카우보이/아메리칸 인디언룩(18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멕시코룩(7회)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역시 카우보이/아메리칸 인디언룩(26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다른 에스닉 패션과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에스닉 패션의 시대별 분포

(n=407, (%))

시 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 계
하위테마	동 양	6	10	3	149 (36.6)
	중 국	6	19	3	
	일 본	9	8	8	
	인 도	7	8	6	
	인도네시아	23	3	2	
	터 키	1	9	1	
	중 동	2	3	1	
	캄보디아		1		
	티 벳		5		
	몽 골		1	1	
	내 팔		2		
	우즈베키스탄			1	
합 계		54 (32.3)	69 (39.7)	26 (39.4)	
유럽록	오스트리아	4	1		133 (32.7)
	스코틀랜드	31	9	5	
	스페인	14	6	10	
	페전트	5	6	4	
	집 시	9	6	4	
	러시아	1	6	4	
	스칸디나비아	2	1		
	프랑스		2	1	
	폴란드		1		
우크라이나			1		
합 계		66 (39.5)	38 (21.8)	29 (43.9)	
아메리카록	카우보이/인디언	18	26	3	68 (16.7)
	멕시코	7	2	2	
	페 루	1	4		
	아르헨티나	3			
	쿠 바			1	
	파나마			1	
합 계		29 (17.4)	32 (18.4)	7 (10.6)	
아프리카록		14	18	4	36 (8.8)
합 계		14 (8.4)	18 (10.3)	4 (6.1)	
오세아니아록		2	2		4 (1.0)
합 계		2 (1.2)	2 (1.1)		
기 타		2	15		17 (4.2)
합 계		2 (1.2)	15 (8.6)		
총 합 계		167 (100) (41.0)	174 (100) (42.8)	66 (100) (16.2)	407 (100) (100)

기타: 특정 국가가 아닌 일반적으로 에스닉 패션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됨.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족은 다른 에스닉 패션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18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80년대(14회)도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4회)는 현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닉 패션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990년대에 아시아족과 유럽족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민속족이 동시에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패션에 있어서도 더욱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패션에서 아시아족의 출현은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시작된 서구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현대에도 높게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족은 세계경제대국들이 새로운 시장개척과 생산비 절감 등의 이점을 안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권기영, 유영선, 1995), 1990년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구매욕구가 늘어났고, 이를 인지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기 때문(박은주, 은영자,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동양 또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타자로서의 비서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의 경제규모와 기술력의 성장에 따른 것(권기영, 유영선, 1995; 박은주, 은영자, 1999)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아시아족과 유럽족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유럽족은 디자이너들의 민속의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더 이상 중국, 인도, 몽골, 페루, 멕시코 등의 서양 기준의 변방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Folklore fashion", 2002). 이와 같이 에스닉 패션이 단순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유럽족 또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에스닉 패션을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만으로 보려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와 공존현상 추이

1)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

1980년 S/S시즌부터 2009년 S/S시즌까지 30년간의 59개 시즌에 걸쳐 나타난 에스닉 패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1992년 S/S시즌(26회)과 1981년 S/S시즌(22회)의 2개 시즌에서 20회 이상의 가장 많은 어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1980년대의 6개 시즌(81년 F/W

<표 2>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 (단위: 어휘수)

시 즈	아시아 족	유럽족	아메리 카족	아프리카 족	오세아 니아족	기 타	합 계
80 S/S		2					2
80 F/W		1	3				4
81 S/S	6	9	4	3			22
81 F/W	2	5	7				14
82 S/S	1	3	1				5
82 F/W	4	9	3				16
83 S/S							0
83 F/W	1	1					2
84 S/S	4		1	2	2		9
84 F/W	4	8					12
85 S/S	3	3	1				7
85 F/W	4	3	2	8			17
86 S/S	8	1				1	10
86 F/W	2	1					3
87 S/S		2					2
87 F/W		4	2	1			7
88 S/S	1	5					6
88 F/W		4					4
89 S/S	11	2	5			1	19
89 F/W	3	3					6
90 S/S		1				1	2
90 F/W	12	5				2	19
91 S/S	4		1	5			10
91 F/W	1	1			1		3
92 S/S	4	1	13	4		4	26
92 F/W	2	1	6			5	14
93 S/S						1	1
93 F/W	3	6		1	1		11
94 S/S		3					3
94 F/W	8	3	3				14
95 S/S	1						1
95 F/W		1		1			2
96 S/S							0
96 F/W		3	2				5
97 S/S	10	4	2	3			19
97 F/W	6	3					9

<표 2> 계 속 (단위: 어휘수)

시 즌	아시아 북	유럽북	아메리 카북	아프리 카북	오세아 니아북	기 타	합 계
98 S/S	4			1		1	6
98 F/W	3	3	2				8
99 S/S	4	1	3				8
99 F/W	7	2		3		1	13
00 S/S	1	1	1				3
00 F/W	1	1					2
01 S/S							0
01 F/W	1	3					4
02 S/S	1	6	3	2			12
02 F/W	1						1
03 S/S	12			1			13
03 F/W		2					2
04 S/S		1					1
04 F/W		1	2				3
05 S/S	2	2					4
05 F/W		1					1
06 S/S	1	4		1			6
06 F/W	2	2					4
07 S/S			1				1
07 F/W	1	1					2
08 S/S							0
08 F/W	2	4					6
09 S/S	1						1
합 계	149	133	68	36	4	17	407

시즌, 82년 F/W시즌, 84년 F/W시즌, 85년 F/W시즌, 86년 F/W시즌, 89년 S/S시즌)과 1990년대의 7개 시즌(90년 F/W시즌, 91년 S/S시즌, 92년 F/W시즌, 93년 F/W시즌, 94년 F/W시즌, 97년 S/S시즌, 99년 F/W시즌), 그리고 2000년대의 2개 시즌(02년 S/S시즌, 03년 S/S시즌) 등 총 15개 시즌에서 10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10회 이상의 어휘가 나타난 시즌 가운데 1980년대의 1개 시즌을 제외한 5개 시즌이 모두 F/W 시즌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2개 시즌 모두 S/S 시즌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는 S/S시즌과 F/W 시즌에 모두 나타났다. 따라서 에스닉 경향이 F/W 시즌에서 점차 S/S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 따른 시즌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북은 모두 4개의 S/S시즌(89년 S/S시즌, 90년 S/S

시즌, 97년 S/S시즌, 03년 S/S시즌)에서 10회 이상의 많은 어휘가 출현하였으며, 4개 시즌(81년 S/S시즌, 86년 S/S시즌과 94년 F/W시즌, 99년 F/W시즌)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아시아북은 S/S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유럽북은 8개 시즌(81년 S/S시즌, 81년 F/W시즌, 82년 F/W시즌, 84년 F/W시즌, 88년 S/S시즌, 90년 F/W시즌, 93년 F/W시즌, 02년 S/S시즌)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나타났다. 유럽북은 아시아북과 비교하여 F/W시즌에 좀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북은 1개 시즌(92년 S/S시즌)에서 10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개시즌(81년 F/W시즌, 89년 S/S시즌, 92년 F/W시즌)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북은 2개 시즌(85년 S/S시즌, 91년 S/S시즌)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중국북은 홍콩이 중국에 이양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F/W 시즌에 중국과 함께 나타난 티벳, 네팔북은 1997년에 'Seven years in Tibet'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고, 같은 해의 10월에 Time지의 커버스토리에 등장할 정도로 동양의 불교사상이 서구에 영향을 미쳤던 시대적 분위기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2003년 S/S시즌의 일본과 함께 나타난 중국북은 2001년의 9.11 사건으로 팽배해진 현실도피적인 성향이 민속풍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점점 커져가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스타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에스닉북", 2003). 또한 1992년에 높게 나타난 아메리카북은 미국의 걸프전에서의 승리와 관계가 있으며, 아프리카북은 1985년에 이디오피아의 기아를 돕기 위해 세계적인 Live Aid 콘서트가 열렸고, 199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00년에 걸친 인종차별이 종식됨으로써 소수의 백인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국제적인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

위의 <표 2>에서 나타난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즌별 분포에서 출현빈도가 단 1회인 시즌을 제외하

<표 3>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 (n(시즌 수)=26)

공존시즌 \ 시 기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합 계
4개 하위테마 공존시즌	2	1		3
3개 하위테마 공존시즌	4	4	1	9
2개 하위테마 공존시즌	4	7	3	14
합 계	10	12	4	26

고, 나머지 시즌에서 나타난 에스닉 패션의 하위테마인 아시아룩, 유럽룩, 아메리카룩, 아프리카룩, 오세아니아룩 간의 공존현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59개 시즌 가운데, 26개 시즌에서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이 나타났다. 2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이 14개 시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도 9개 시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4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은 3개 시즌에서만 나타났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의 10개 시즌과 1990년대의 12개 시즌, 2000년대의 4개 시즌에서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표 2>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4개 하위테마(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룩)의 공존현상은 1980년대의 2개 시즌(81년 S/S시즌, 85년 F/W시즌), 1990년대의 1개 시즌(97년 S/S시즌)에서 나타났다. 3개 하위테마의 경우, 1980년대에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룩의 공존현상이 3개 시즌(81년 F/W시즌, 82년 F/W시즌, 89년 S/S시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개 시즌(84년 S/S시즌)에서만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룩이 함께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90년대에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룩의 공존현상이 2개 시즌(94년 F/W시즌, 98년 F/W시즌)에서 나타났으며,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룩(92년 S/S시즌)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룩(99년 F/W시즌)의 공존현상이 각각 1개 시즌에서 나타나 1980년대에 비하여 좀더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개 하위테마의 경우, 1990년대에 7개 시즌으로 1980년대의 4개 시즌과 2000년대의 3개 시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1980년대와 2000년대는 1개 시즌(87년 F/W시즌)을 제외한 6개 시즌(84년 F/W시즌, 85년 S/S시즌, 89년 F/W시즌, 05년 S/S시즌, 06년 F/W시즌, 08년 F/W시즌)에서 모두 아시아-유럽룩이 공존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아시아-유럽룩(90년 F/W시즌, 93년 F/W시즌, 97년 F/W시즌), 아시아-아메리카룩(92년 F/W시즌, 99년 S/S시즌), 아시아-아프

리카룩(91년 S/S시즌), 그리고 유럽-아메리카룩(96년 F/W시즌) 등 다양한 에스닉 패션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전체적으로 에스닉 패션의 공존시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이 1980년대에는 3개 하위테마의 경우, 아시아-유럽-아메리카룩의 공존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2개 하위테마의 경우, 아시아-유럽룩의 공존현상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3개 하위테마의 경우,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룩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룩의 공존현상이 나타났고, 2개 하위테마의 경우에도 아시아-아메리카룩, 아시아-아프리카룩, 그리고 유럽-아메리카룩 등 다양한 에스닉 패션의 공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에 정보의 네트워크에 따른 세계화 추세에 따라 에스닉 패션의 수평적 다양성과 상호교류현상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에스닉 패션의 시대별 추출어휘

다음은 에스닉 패션의 5개 하위테마별로 각 시대에 따라 나타난 어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추출어휘는 다음의 <표 4>-<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아시아룩으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중동, 캄보디아, 티벳,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이 나타났다.

중국룩은 1980년대에 차이니즈 팬츠, 탑, 셔츠, 만다린 등 단순히 아이템을 표현하는 어휘가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는 장삼, 만다린 드레스 등과 함께 자카드, 브로케이드 등의 직물과 꽃 무늬가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장삼과 함께 핸드 프린트가 나타났다. 특히 중국룩을 표현함에 있어서 1980년대에는 차이니즈라는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차이니즈(Chinese)와 시느와즈리(Chinoiserie)가 함께 사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시느와즈리라는 어휘만이 나타났다. 시느와즈리는 중국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교역을 통해 중국풍의 디자인 모티프가 반영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유럽 공예품을 일컫는 것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일본룩은 1980년대에 기모노와 오비, 무사복의 여밈 방식과 레이어드 스타일이 나타나 서구 패션에 비

<표 4> 아시아룩의 시대별 추출어휘

하위테마	시 기	주요 추출어휘
아시아룩	1980년대	Chinese pants, Chinese top, Chinese kimono, Chinese pyjama shirt, tiny mandarin, Chinese blue, etc.
		kimono, Japanese-style layers, obi sash, samurai sworesman close, pastel color range of Japan, Japanese straw backpack, etc.
		India under British colonization, woolens jacket like an Indian sari, long skirts and draped, wrapped like sari, Indian influences-bare midriffs wrap top, etc.
		sarong-wrap skirt, sarong pants, Balinese prints, batik prints, batik skirt, etc.
		burnoose coat
		Orient, oriental, side-slit oriental pants, oriental print, oriental motifs print, Asian dragon, etc.
	1990년대	China-mandarine princess dress, Chinese red pants, China cheongsams, Chinoiserie-style jacket, Chinese folkloric floral prints, Chinese satin florals, Chinese silk Jacquard dress, Chinoiserie brocade, Chinese influence, Chinese pinups, etc.
		Japanese warrior outfits, Japanese stripes, satin kimono coats, kimono, etc.
		sari, Indian prints, mirror embroidery, etc.
		Indonesian sarongs, ikat print, etc.
		harem trousers, turquoise turban, Turkish, etc.
		Middle Eastern folklore, caravan, chador
		far east -angkorwat-Khmer temple danser
		Tibetan pilgrims, Tibetan monks, Tibet-slouchy pantsuits, Tibetan prayer shawls, Tibetan tiger prints
		Mongolian coat
		Nepalese long golden shawl, monklike minimalism
	2000년대	Orient, Asian flu, eastern-style padded jacket, east-antique patchwork, exotica of the far east, etc.
		Chinoiserie dress, cheongsam, Chinoiserie hand-painted, etc.
		kimono shapes, obi, Jacquered beauty of a Japanese box, etc.
		Saris, mirror-embroidered jeans, etc.
		ikat chiffon dress, hand-printed ikats, etc.
		harem pants, etc.
		Persian-lamb coat
		Mongolian-lamb stole
Buddhist fashion accessory, Himalayan proportions		
Uzbek embroideries		
Asian vibe, mixing Indonesian and Chinese florals, etc.		

구조적 형태의 풍성한 실루엣과 레이어드룩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무사복과 줄무늬, 새틴 직물의 기모노가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기모노와 오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인도룩은 1980년대에 랩스커트 형태의 사리와 함께 일명 배꼽티라 불리며 젊은이들의 패션으로 정착한 짧은 탑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전통적인 프린트와 미러워크 자수기법이 2000년대에는 진에 활용되었다. 인도네시아룩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사롱, 바틱, 이캣에 이어 2000년대에는 수공예적인 이캣이

강조되었다.

중동룩으로는 1980년대의 버누즈 코트만이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는 중동의 포클로어 영향과 함께 차도르와 터키의 하렘 팬츠, 터번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하렘 팬츠와 페르시아 양털 코트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1990년대에 나타난 티벳, 몽골, 네팔 승려들의 미니멀 스타일은 동양의 선사상과 서구 미니멀리즘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유럽룩으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페전트, 집시, 스페인, 스코틀랜드, 러시아, 스칸

<표 5> 유럽륙의 시대별 추출어휘

하위태마	시 기	주요 추출어휘
유럽륙	1980년대	dirndl skirt, smart Tyrolean
		smock dress, peasant skirts
		gypsy, gypsies acc-colored bangles, beads, bright bandanas, etc.
		matador's bolero, matador pants, flamenco shawl coat, etc.
		kilt, tartan pants, Fair Isle wool sweater-coat, paisley print, paisley lined on fur, etc.
		black Russian broadtail into brief zippered jackets, etc.
		Scandinavians knits
	1990년대	lederhosen straps straight out of the Tyrol
		pinafore dress over a white shirt aprons, apron dresses, apron tunic over pants, etc.
		gypsy influences such as ruffles, floral patterns, exotic gypsy prints, gypsy trend, etc.
		matador jacket -bolero, Spanish flamenco, etc.
		prince of Wales suit-kilt, schoolgirl look kilts, Fair Isle sweaters, Paisley, Scottish tartans, etc.
		Russian princess dress, Russian region of Astrakhan, romantic Russian-inspired trans-Siberian show, etc.
		Nanook of the North's jacquard knit cardigan, Nordic
		South of France frilly French maid's uniform
	2000년대	ethnic smock -Polish-refugee look
		peasant dresses, peasant mini-smocks, peasant blouse, etc.
		ruffle-tiered gypsy skirt, colorful gypsy skirts, etc.
		new bolero shape tiers of black flamenco lace, gold bolero trimmed with lame braids Toledo, matador, flamenco skirt, Spanish flamenco ruffles mantilla lace, etc.
		paisley silk blouse, paisley jacket, tartan dress with silk lace, nubby Scotch weave, etc.
		Russian czar's dragoons
		Lyon silks
	Ukrainian lace	

디나비아,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이 나타났다.

오스트리아륙은 1980년대의 티롤리안 던들 스커트와 1990년대의 티롤리안 가죽 바지가 나타났다. 페전트륙은 1980년대의 스모크 드레스와 페전트 스커트가 1990년대에는 에이프런 드레스 스타일로 주로 나타났고, 2000년대는 페전트 드레스와 블라우스, 미니 형태의 스모크 드레스가 나타났다. 집시륙은 1980년대에는 화려한 액세서리 위주였으나 1990년대에는 리플을 이용한 집시 스타일과 꽃 무늬나 이국적인 집시 무늬가 나타난 반면, 2000년대에는 리플 티어드 스커트와 화려한 집시 스커트가 나타났다. 스페인륙은 1980년대에 투우사의 자켓, 플라멩코 솔 코트가 나타났고, 1990년대 역시 볼레로와 플라멩코 드레스가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레이스와 라메 브레이드 장식의 볼레로와 리

플 장식, 레이스 만틸라 등이 나타났다. 스코틀랜드륙은 킬트와 타탄, 페이즐리 무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킬트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유럽의 니트가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우크라이나륙으로 레이스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아메리카륙으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의 카우보이와 아메리칸 인디언, 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쿠바, 파나마, 페루 등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타났다.

북미의 카우보이륙, 아메리칸 인디언륙이 서부개척시대의 대초원륙과 함께 대표적이며, 특히 1990년대에는 나바호족의 장식과 함께 체로키족의 스커트 스타일, 에스키모의 이글루 재킷과 후드 스타일이 나타났다. 대초원의 전원적인 스커트 역시 2000년대에는 비

<표 6> 아메리카족의 시대별 추출어휘

하위테마	시 기	주요 추출어휘
아메리카족	1980년대	Indian moccasin, Indian crocheted fringe, Indian fringes, Navajo, wild west-fringed cowgirl skirt, prairie skirt, cowboy boots, etc.
		Santa Fe dress, cape, shawl, serape, poncho, cape coat, gaucho pants, gaucho hat
	1990년대	American Indian-inspired collection, fringed suede tunics, native American motifs, Indian, Cherokee style dress, Navajo jewelry, cowgirl chic, cowboy boots, cowboy jeans, prairie skirts, short shearling 'Igloo' jacket, Eskimo-style hood, African American animal, tribal prints, etc.
		Mexican serape stripes, ponchos, big buffalo plaid, Mexican mirror embroideries silk poncho, Peruvian sweater
	2000년대	deerskin jackets, American West-cowboy boots, beaded lace prairie skirts, American romantic
		cape, capelet, rumba ruffles, straw Panama hat

<표 7> 아프리카-오세아니아족의 시대별 추출어휘

하위테마	시 기	주요 추출어휘
아프리카족	1980년대	African knits, Berber-like hood, hooded looks, African prints, African masks, African prints wooden beads, Egyptian wing, etc.
	1990년대	African, Samburu dancer-Kenya, African patterns and textile, African prints, African accents-bold graphic print, graphic North African prints, Morocco, African mud cloth and silver jewelry, African-inspired gold beads, African necklace, bangles, African colors-black with white and a little bit of copper, etc.
	2000년대	caftan, African patterns, Egyptian-cotton asymmetrical tanklet, African print, etc.
오세아니아족	1980년대	Adelaide Organdies, Sydney suits
	1990년대	transparent Polynesian dresses
기 타	1980년대	exotic vibrantly colored prints, mix East & West, etc.
	1990년대	exotic, ethnic, multicultural concept, crisscrossing cultural borders, nouveau folklore, modern folkloric feeling of fashion, ethnic mix, etc.

즈 장식의 레이스가 사용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영향으로는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가우초 스타일이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멕시코의 머리기법이 나타났다.

아프리카족으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이집트와 동아프리카의 케냐 등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났고, 오세아니아족으로는 애플레이드 오건디, 폴리네시아 드레스 등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베르베르족의 후드 스타일과 이집트, 아프리카의 프린트가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 프린트, 텍스타일과 함께 모로코와 북아프리카의 프린트, 동아프리카 케냐의 삼부루족 등, 아프리카로부터 영감을 받은 액세서리와 색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역시 아프리카 패턴과 함께 카프탄과 이집트의 면이 사용되었다. 오세아니아족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만 나타났다. 기타에 속하는 어휘들이 1980년대에 동·서양의 혼합현상을 보여준 반면, 1990년대에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더욱 다양한 문화의 공존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족의상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에스닉 패션의 전개양상을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에스닉 패션의 추이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1980년 1월호부터 2009년 1월호까지 30년간에 걸쳐 간행된 총 59권의 Vogue지 가운데, 패션 칼럼 'View'와 'Point of view'의 기사를 대상으로 추출된 총 407개의 어휘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80년대도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는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아시아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족과 유럽족에서 좀더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에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에스닉 패션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속룩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2년 S/S시즌과 1981년 S/S시즌에 20회 이상의 가장 많은 어휘가 출현하였고, 1980년대의 6개 시즌과 1990년대의 7개 시즌, 그리고 2000년대의 2개 시즌에서 10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로 F/W시즌에 높게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S/S시즌에 나타난 반면, 1990년대에는 S/S시즌과 F/W시즌이 모두 나타나 에스닉 패션이 F/W시즌으로부터 점차 S/S시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스닉 패션의 시즌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7년 S/S시즌과 F/W시즌의 중국 룩과 홍콩이양, 1992년 S/S시즌의 미국룩과 걸프 전쟁, 1985년 S/S시즌과 1991년 S/S시즌의 아프리카룩과 이디오피아 기아구제 콘서트와 남아메리카 인종차별종식 등 특정 민속룩의 출현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을 살펴보면, 전체 59개 시즌 가운데 26개 시즌에서 에스닉 패션의 하위 테마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시대에 따라 공존하는 하위 테마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전체적인 공존시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이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아시아-유럽룩의 공존현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아시아-유럽룩, 아시아-아메리카룩, 아시아-아프리카룩, 유럽-아메리카룩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에스닉 패션의 추출어휘에 대한 시대별 차이를 알아보면 시대에 따라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민속 룩과 각 민속룩을 나타내는 어휘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아시아룩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띤 미니멀리즘적인 표현이 나타났고, 모든 지역의 민속룩에서 좀더 다양한 스타일과 패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좀더 수공예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의 에스닉 패션을 고찰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시간적 연구대상이 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에스닉 패션의 공존현상의 추이를 살펴보았음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에스닉 패션의 추이와 공존현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의 패션 잡지 Vogue를 실증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국가의 다른 잡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매해 1월호와 7월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Vogue지의 기사에 대한 언어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시각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에스닉 패션의 추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영, 유영선. (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복식*, 26, 69-85.
- 김은경, 채금석. (2006). 현대 스포츠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7), 1054-1065.
- 김정아, 정현남, 염혜정. (2005).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23-34.
- 나이스비트, 존. (1999).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옮김 (2000). 서울: 한국경제신문.
- 남재경, 금기숙. (2001). 1990년대 패션트렌드 분석연구: 여성 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9), 1645-1654.
- 리포베츠키, 질. (1987). *패션의 제국*. 이득재 옮김 (1999). 서울: 문예출판사.
- 멘데스, 벨러리, 헤이, 에이미 드 라. (1999). *20세기 패션*. 김정은 옮김 (2003). 서울: 시공사.
-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주, 은영자.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 259-282.
- 박혜원, 이미숙, 염혜정, 최경희, 박수진. (2006). *현대 패션 디자인*. 서울: 교문사.
- 애버딘, 패트리샤. (2005). *메가트렌드 2010*. 윤여중 옮김 (2006). 서울: 청림출판.
- 에스닉룩의 의미와 역사. (2003, 2. 7).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7, 3. 7,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이경희, 김희정, 김유진, 김윤경, 노명혜, 오혜순, 은소영, 주소현. (2002). *패션디자인 발상*. 서울: 교문사.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아, 황선진, 유송옥. (1996). 20세기 여성 복식에 표현된 Ethnic Fashion 연구. *복식*, 27, 207-217.

- 정연자. (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31(4), 215-229.
- 채금석, 千村典生, 김미숙. (2003).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481-493.
-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53(2), 137-151.
- 최호정. (2007).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복식*, 57(3), 150-164.
- 추미경. (2006). *내용분석법을 이용한 20세기 말 밀리터리 룩 디자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춘섭. (1997). *세계傳統服飾*. 서울: 수학사.
- Folklore fashion fever I-Alpine & Tyrolean look. (2002, 10. 17).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7, 8. 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Modern African trend. (2007, 7. 3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7, 8. 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Biema, D. V. (1997, October 13). Buddhism in America. *Times*. Retrived September 10, 2008, from <http://www.time.com>
- Burns, L. D., & Bryant, N. O. (2002). *The business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 Carnegy, V. (1990). *Fashion as a decade: The 1980s*. New York: Facts on File.
-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 deathlines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Feldman, E. (1997). *Fashion as a decade: The 1990s*. New York: Facts on File.
- Frings, G. S. (2002).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6th ed.). New York: Prentice Hall, Inc.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Jencks, C. (1989). *What is post-modernism?* New York: Academy Editions London/St. Martin's Press New York.
- McDowell, C. (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on Press-limited.
- Morgado, M. A. (1996). Co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apparel scholars. *Th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1), 41-53.
- O'Hara, G. (1986).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From 1840 to the 1980s*. London: Thames and Hudson.
- Said, E. W. (1978).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Schiro, A. M. (1991, November 3). Looking for new fashion markets, designers from America go global. *New York Times*. Retrived October 23, 2008, from <http://www.nytimes.com>
- Tortora, P. & Eubank, K. (2005). *Survey of historic costume* (4th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 Worsley, H. (2000). *Decades of fashion*. Köln: Könenan Verlagsgesellschaft mbH.